

Field Voice >>>

“발전소 건설에 대한 부정적 시각 개선되어야”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다보면 수 많은 애로 사항이 있다. 특히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부딪힐 때 가장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

발전소는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기간산업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영 능력 또한 뛰어나다. 지역 분들이 우려할만한 안정성의 위험은 없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싼 수준의 전기를 보급하고 있다.

만약 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못하고, 현 수준에 머문다면 값싸고 편리한 전기사용에 제약이 따를 것이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발전소 건설에 대해 보다 따뜻하고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격려해 주길 기대한다.

“전기안전 점검 업무 인력상태 및 장비현대화 시급”

전기안전 점검업무를 수행해 온지 수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해당업무 직원들의 근로환경이 참 열악하다는 느낌에는 별다른 변화의 희망이 번번히 비껴나가곤 하네요.

정기적인 점검은 물론 문화재나 철도, 각종 산업시설에 대한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경우, 무엇보다 점검인력과 장비의 부족함이 절실히 느껴지는 현실문제의 해결이 조기에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인력의 경우에는 집에서 잠을 자다가도 전기가 끊겼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에 나가거나 하는 상황이 계속되곤 합니다. 여유 있는 교대근무가 가능해짐에 따른 안전사고예방은 물론 근로형태의 효율성이 제고됨으로써 전기사고를 복구하는 사명감이 더해질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기대치가 여전히 간절합니다.

“개발에 앞선 친환경성 최대 유지하는 현명함 필요”

지난 해 강원도 삼척 여행길에서 맛따드린 수많은 송전탑이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 장면이 과히 좋지않아 보였다. 소중한 전기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의 피해를 더욱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건설공법 등이 빠른 시일 내에 적용되길 기대한다.

이제 전기는 인간과 떼어낼 수 없는 관계에 직면해있다. 해당지역민들과의 민원으로 발전소 관계자들이 힘겨운 법정공방과 곤혹을 치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쌍방간에 유지하고자 하는 평행선을 잠시도 철회할 의사가 없다면 이 같은 소모적인 싸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아님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이 하루속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소중한 자연이 모두 더불어 잘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을 소망한다.

“최초의 원전수출 승은 공신들”

원자력정비기술센터는 원자력 내부를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기관으로 원전 계획·예방 정비 시 발전소 내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곳이다. 그들은 원자력 발전소 내부를 직접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는 내부를 점검할 로봇을 만들기도 한다. 이들이 없다면 원전 수출에 대한 꿈을 꾸지도 못할 정도로 이들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의 근로 환경은 매우 열악한 편에 속했다.

일단 발전소별 계획·예방 정비 일정이 발표되면 센터 기술진들은 12시간 교대 근무를 한다. 이에 따른 3교대나 4교대는 인수인계가 길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로봇을 0.1mm를 옮기는 세밀한 작업 등을 수행할 경우, 상당한 어려움이 수반된다. 또 보통 250일 정도는 외부에서 생활하고 계획예방 정비기간과 겹치는 연휴에 고향에 간다는 것은 꿈에 불과하다.

공기업은 '신의 직장'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 같은 고충을 묵묵히 감수하며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